

<2021년 8월 10일 화 새벽 말씀>

[주 말씀]

8월 10일 새벽말씀입니다. 금주는 깨끗게 하여라. 그래야 하나님 성령님 성자 앞에 주 앞에 가게 되고 그 역사를 함께 펴게 된다 말씀했어요. 흠없이 하라고 말씀했죠. 주제가. 사람은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깨끗이 못하고 흠있게 한다. 그런 의미에서 흠없이 깨끗이 하여라.

늘 말씀하기를 100% 아예 하라. 사명 받은 자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하게 되니, 또 가르치고 연단해야 되나니, 그러므로 사명받은 자가 깨끗이 하여라. 저마다 자기 삶의 사명을 받듯이 하나님을 향한 저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일과 신앙인데 일을 하되 하기는 하는데 시켜보면 깨끗이 세밀하게 자세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건 기술도 부족해서도 있지만은 안해서 그래요. 하면 하는데. 큰 일도 했는데 작은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경 안 쓰니까 그래요.

크나큰 집을 지었는데 그 다음에 구체적인 하나 하나 여기 저기 것을 안해요. 큰 일도 해놓고 작은 일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두 깨끗이 하여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큰 죄도 회개하고 했는데 작은 죄들을 회개치 않는구나. 이런 말씀들이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금주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도 주의 강림하실 때는 영도 육도 혼도 흠없이 나타나야 된다. 흠 때문에 책망받고 죄를 지적받고 사탄도 오고 악한 자도 말한다. 아예 깨끗하면 얘기를 안한다. 모든 병들도 큰 것은 잡는데 작은 병을 못 잡아서 그것이 커서 큰 병이 되는 일이 있어요. 그러므로 작은 것도 잡아라.

글을 썼는데 큰 것은 90% 고치고 했는데 여기 저기 언어가 뒤바뀌고 작은 것들이 안 되어 있는 것은 큰 것도 하는데 작은 것은 손대면 합니다. 안해서 못합니다. 한 두 번 세 번 교정하면 없어져요. 이런 일들이니 하면 할 수 있으니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믿음도 믿기는 하는데 80% 믿어요. 나머지 20%는 흠이지. 섭리역사를 믿고 따라오는데 흠이 있다면 100% 안 믿어요. 화끈하게 뜨겁게 믿지 못해요. 사랑도 하는데 흠이 있어. 90%는 하는데 10%는 못해. 흠 때문에 못하는 거야. 하면 할 수 있는데.

말씀도 흐름을 압니다. 역사의 흐름도, 주도, 시대 말씀도 아는데 확실하게 흠이 없이 모두 알아야 되는데 흠없게는 모른다는 거야. 흠잡힐 만큼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확실하게 세밀하게 배우고, 돌아갈 길은 돌아가고, 우측과 좌측을 확실히 알고 가야지. 동은 동 서는 서 가야지 동서쪽으로 향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서쪽 아니면 남쪽 확실해야 돼. 방향이 10%만 바뀌어도 동서방향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인생들이 살아갈 때 거기서 문제가 생겨요. 흠에서. 큰 것은 잘 하는데, 안전의 문

제도 보면 큰 것은 다 했는데 작은 것을 못 해서 안전사고가 생기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큰 것도 했으니 작은 것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70일 기도하는 것을 보시고도 평가한 말씀이요. 이번은 그러므로 흠없이 깨끗이 하여라. 아예 자기를 흠없이 만들라. 상대도 흠없이 만들어라. 그랬습니다.

운동을 해도 큰 것은 잘 해요. 그런데 자세한 것 세밀한 것은 못하니까 원하는 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푸는데 흠있게 풀면 안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말씀이니까 흠있게 풀면 안된다. 시험을 보는데도 마찬가지야. 중고등부 수능이 100일 남았는데 흠없이 준비해야 됩니다. 흠없이 하려면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실히 이해하고 알아야 그것이 입력되고 암기가 되는 거야.

암기를 했어도 제대로 답을 확실히 모른 상태에서 암기를 하면 쓰는 날 또 문제가 생깁니다. 확실히 한번 배워 놓으면 지금은 흠없이 배울 때야. 지금 배워야 확실하게 봤어 하면서 써버립니다. 흠없이 의심없이 모두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70일 기도 끝났어요. 여러 가지 행위대로 하나님은 갚아주시고 들어주시고 했습니다. 다음 기도는 우리를 만드는 데에 집중적으로 하라. 흠없이 100% 만들어라. 우리를 흠없이 완전히 만들어야 곡식이 창고에 들어가고 들쥐도 새들도 쪼아먹지 못합니다. 주인이 아예 창고로 곡식창고에 넣어버리니까. 뭘 해도 시원찮게 하면 틈을 통해서 도둑이 들어옵니다.

완벽하게 해야 자기 것이 됩니다. 오래 걸려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흠이 없이 되어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작은 데서 항상 문제가 생겨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틈이 흠입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했습니다. 마귀가 틈으로 들어옵니다.

코로나도 틈으로 오염되고 전염됩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해버리면 괜찮아요. 완벽하게 해버리면. 그런 틈을 마지막으로 막고, 바늘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들어온다고 겨울철에 추운 바람이. 이와 같이 흠이 각 분야마다 자기 삶의 분야마다 조금씩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잘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전도도 안되고 전도하는 데 있어서 흠, 말하는 흠, 전달하는 흠, 그리고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하는 흠. 하는 데 있어서 흠이 있으면 제대로 안된대요. 흠없이 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노력하고 준비하고 세밀하게 해야 됩니다.

물고기를 넷가에서 잡아봐도 작은 틈으로 새어나가 버립니다. 완벽하게 하면 절대 새어나갈 수 없어요. 모기도 모기장이 이상 없는데 본인 따라서 들어왔어요. 본인이 땀냄새 나니까 등어리 붙어서 따라 들어왔어요. 그런 흠을 발견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요.

하나님이 흠없이 하라는 말씀은 최첨단의 완성을 위한 마지막 손대는 일입니다. 사람들도 저 에

는 다 괜찮은데 흠이 너무 많아.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흠없이 하라는 성서의 말씀도 역사적으로 해오셨고, 우리 시대도 흠없이 하라고. 신부들은 흠없이 하라. 깨끗이 하라. 정결케 하라. 다 씻었어도 씻을 것을 못 씻으면 흠이 있는 것입니다. 목욕하고도 이를 안 닦으면 흠이 있는 거야. 귀구멍도 코도 깨끗이 하고.

작은 흠으로 큰 병이 와서 죽을 때 억울해요. 항상 그 하나 때문에 완성을 못 이루고 100점을 못 이루고 사람들이 볼 때에 청소가 안 됐네 합니다. 쓰레기를 두차 세차 다 실어냈어요. 이제 사람들이 깨끗하다 했는데 뒤처리 안 하면 원래부터 그런지 압니다. 3차 실어낸 거 생각도 않고. 바닥에 찌꺼분한 거 마지막에 빗자루질을 안하면, 그만큼 청소 안 한 거 인데 안 한 걸로 보여요. 그러므로 마지막 깔끔하게 뒤처리를 해야 되요.

일한 표를 내야 되요. 선생이 많은 일을 같이 해보고 겪었는데 한 마디 있다면 하기는 하는데 깔끔하게 못한다는 거야. 선생님은 깔끔하게 하는데 나도 저 정도 할 수 있는데 안했을까? 너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한다. 세밀하게 신경쓰고 해야 돼. 세밀하게 하려면, 살덩어리는 느낌이 적어요. 신경 쓰라는 말은 신경은 세밀합니다. 자세합니다. 살짝만 자극해도 느끼죠. 살로 하지 말고 신경을 써서 하라.

신경은 최첨단의 것까지 세밀하게 알아요. 느끼니까. 신경써라. 그런 말을 하죠. 보면은 다보여요. 1차 2차 3차 보면 확실히 보여요. 선생님은 세밀하게 보잖아. 그런데 세밀하게는 못하더라고. 자세하게 못 하더라고.

설교도 잘 하죠. 써놓은 대로 하면 잘하는데 만들어서 하라 하면 흠이 있어요. 그것을 흠을 찾아내고 전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얼마나 커요. 증거하는 데, 가르치는 데 모두 흠없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거하면 좋겠는데. 옆에서 늘 보면 한 두명씩 와서 보면 옆에서 증거하는 자들이 이것을 증거하면 좋겠는데 이걸 안해줘. 요즘에 한 명씩 외부사람 만나는데 이것을 못해줄 때는 아쉬워. 물론 내가 할 때는 나이가 적어서 그 시대 못해서 못하는데 이런 것을 해줘야 하는데. 주가 말하면 같이 증거를 해줘야 증거가 되는 거야. 항상 그래야 해요.

주는 가식적인 증거를 안해요. 이미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한 일을, 있었던 일을 말해요. 없는 일을 말을 하지 않아요. 해봤자 증거가 흠덩어리라 안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주가 말씀하면 제자들도 같이 따라 말하고. 그런 입장이 되야 해. 성령이 말하면 같이 따라 말하고. 불을 달고 나가면 같이 달고 나가고, 같이 몸뚱을 붙여서 나가야 해요. 100% 하지 않으면 안되요. 그와 같이 서로 같이 행해야 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 되어서.

이러므로 여러 각 분야를 생각해야 되요. 말씀을 갖고. 사람이 살아가는데 수백가지로 행합니다. 나부터도 열 몇가지로 매일 행합니다. 그 때마다 흠없이 해야는데, 충분히 해야되는데, 생각합니다. 기회는 한번인데.

보면 자기들이 행했을 때 흠없이 아니하면 나중에 한 다음에 보여요. 자기가 크거든. 크면 수준이 높아지고 보는 것이 높아지니까 이것은 흠있다. 수석같은 것도 보면 흠이 없어야 제값이 되고 가치가 최고가 됩니다. 미스코리아나 보면 흠없을 때 최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죠. 흠이 있으면 그로 인해 깎아버려요. 흠 때문에 전체의 가치가 깎여요.

돌들도 흠이 없는 것. 브이로그에 보면 70일 기도했다고 선물로 받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들이 거진 흠 잡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섭리사람들이 그만큼 했기 때문에 그만큼의 것을 주신 거야. 원래 선생님이 성령과 같이, 오늘 성령과 내가 같이 일함을 확실히 믿느냐. 시원찮게 믿어서 그동안 해온 것을 옆에 사람에게 많이 얘기했어. 이것들 시범적으로 얘기하자고 성령과 같이 얘기했어.

돌을 많은 사람이 다 주워갔지만 성령님 그래도 이 근방에 있지 않겠냐고. 있다고 해서 확인하고 결국 찾고 1년 만에 갖고 왔어. 흠없이 가져오려고. 주인한테 얘기해서 주인이 주게 해서 갖고 왔어요. 흠이 없는 돌이었습니다. 흠없이 말씀을 행하고 모두 행하니까 그만큼 흠없는 걸 줬어요. 가져오면 흠이 있어서 주인한테 얘기하고 다해서 주인이 그런 돌도 귀한 돌이니까 하고 줬어요.

이와 같이 해서 이번에 70일 끝나고 나는 70일 하루 전에 끝났는데 성령이 그그저께 주셨어요. 주인한테 얘기하면 준다 했더니 얘기했더니 줬어요. 이와 같이 주인의 땅이어서 주인에게 얘기를 해야 되요. 이와 같이 모든 것을 흠없이 하려면 오래 걸려요. 지혜롭게도 해야 하고, 잘못하면 그냥 갖고 오면 주인에게 흠이 생기죠.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간에 준 것들이 여기 저기 많습니다. 그들을 또 그 후에 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들 것이 특히 될 거야. 그것들도 모두 줬는데, 그 사람들은 70일 기도한지도 모르는데 기도 끝나는 날 갖고 왔어요. 여러분 기도 끝나는 날 하루 전에 갖고 오고, 나도 기도 끝나는 하루 전에 줬어요.

흠없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중에는 단단한 돌도 있고, 모양은 좋은데 단단치 못한 돌도 있고. 여러분들을 모두 상징한 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상징한 대로 주셨습니다. 흠없이 하여라. 신부는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깨끗한, 흠없는, 완전한 존재자입니다. 삼위와 같이 살려면 우리도 흠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전체적으로 깨끗한데 몇 가지로 흠있다고 물건을 깎습니다. 흠이 없는데 흠잡으면 주인이 팔지 않습니다. 흠이 있는데 잡으면 맞네요. 그것 때문에 얼마 빼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흠없는 자들이 되고. 작품은 흠이 없어야 작품이라고 합니다. 흠이 없어야 걸작이라고 합니다. 흠이 있으면 안타깝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귀한 작품들이예요. 사랑의 작품. 이 물건들도 수석이나 나무들도 흠이 없으면 되게 사랑합니다. 사람들도 흠이 없으면 존경받고 사랑받고 그래요. 특히 나무나 돌도 아주

흙이 없으면 늘 소개해주고 증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많은 돌 중에 이 돌이 제일 낮고 아주 가치있고 사랑받는 돌이라고. 나는 이 돌을 사랑한다고. 돌도 흙이 없으면 사랑받아요.

월명동 나무도 각각 이 나무 좋아한다 저 나무 좋아한다고 하지만 내가 설명해주면서 이 나무는 흙이 있어서 70점 밖에 안돼. 나 흙없는 나무 할래요. 이것도 니가 잡아주고 가지치기도 해주면 가지가 골고루 뻗어나가니까 흙이 없어져.

이와 같이 흙이 있는 것도 잘 모르고, 흙을 없애는 것도 잘 모릅니다. 흙이 있어도 없애기 쉬워요. 나무는 수형이 시원찮으면 철사로 잡아당겨요. 그래서 골고루 수형이 잡히게 해줍니다. 그러면 흙이 없어져요. 흙없다고 자신을 버리면 되겠어요? 흙있다고 전도해서 버리면 되겠어요? 어렸을 때 흙이 많지만 크면 없어져요. 어릴 때 흙터가 있어도 크면 없어지듯이. 이와 같이 여러 흙들을 없애는 비법도 알고 지혜롭게 행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와 함께 성령과 함께 사는 데도 흙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를 모르고 흙을 없애려고 안한다는 거야. 돌은 갈아서 없애면 더 빛이 나요. 그렇게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자꾸 돌은 손을 대면 가치는 떨어지지만 흙은 없어져요. 사람은 만들수록 비쌉니다. 돌은 손대면 가치가 떨어져요. 흙도 자연미라고. 사람은 흙이 자연미가 안되요. 사람은 손을 댈수록 가치가 있어요. 백방으로 가짓수대로 깨끗하게 흙이 없게 손을 대야 합니다.

옥을 손을 안대고, 다이아몬드는 손을 안대고는, 최고의 가치를 100% 발휘할 수 없어요. 우리들도 보석인생들도 손을 댈수록 빛이 납니다. 다이아몬드는 60쪽을 빛이 나게 손을 대요. 조그만한 팔만한데. 어떤 것은 더 작지만 그 작은 데 60가지를 손을 대요. 그러니 빛이 서로 부딪혀서 60군데서 발합니다. 우리들도 60가지를 손을 대면 다이아몬드같이 빛을 낸다고 합니다.

금은 한 가지 빛인데 한군데도 은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100% 금빛이 찬란하죠. 사람은 손을 댈수록 좋아지고, 자연석은 손을 댈수록 안 좋고, 조각은 많이 찍어낼수록 멋있게 형상이 나타나고, 나무도 손을 댈수록 비싸게 됩니다. 월명동 나무도 특이종의 나무는 집중적으로 손을 댕니다. 표가 확나죠. 여러분도 자꾸 손을 대서 멋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지상의 천국은 만들어서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도 계속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 때에 이상적인 기쁨도, 만드는 목적은 자신의 목적도 있지만 상대적인 목적으로 만드신대요. 지구상에서 하나님 믿고 사랑하고 오는 자들을 위해서도 목적을 두고 만들고, 하나님 스스로 원해서도 만드시지만 그들을 위해서도 자꾸 만든답니다.

월명동 만들 때 나는 이제 쓰고도 남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위해서 자꾸 만들어요. 앞으로 많은 하늘의 택한 자들이 온단말이야. 그들을 위해서 계속 만들어요. 지금 못 만들면 내가 원하는 만큼 못 만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그 차이가 하늘까지 닿지. 여러분이 원하는만큼으로는

하늘까지 못 닿습니다. 구상 자체를 못받아요. 또 그 어마어마한 일을 받아도 못합니다. 나이적으로도 어려서 못합니다. 더 일찍 해야 해요. 어마어마한 구상을 하나님께 줄 수도 없는 입장이야. 내가 있을 때 받고 만들어놓고 가야지.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이 더욱 우리러 보는 거야. 여러분들 멋있고 팔방미인일지라도 오막살이 집으로 들어가면 안 어울리네.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이 멋있는 아름다운 곳에 가면 잘 어울리네. 갖춰놓고 사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시대에 하나님 부름받은 자는 그렇게 갖추어 놓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권세가 되고, 세력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러 보는 것들이 됩니다.

월명동 가서 구경시키고 나만 쳐다봐서 우리러 보는 자 없어. 구경시켜 놓으면 나까지 우리러 봐요. 역시 배경이 귀하고 만든 것도 인정하더라고. 이렇게 만들었으니 존경한다고 우리러 본다고. 뭔가 여러분들 위해서 만들어놔야 해. 많은 생명들을 만들고 기르면 그로 인해 한 자를 우리러 봅니다.

월명동을 보고 우리러 보고, 많은 생명이 따르니까 우리러 봅니다. 또한 말씀 보고서 듣고서 그때서 깜짝 놀라고 우리러 봅니다. 이런 것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흠없이 전하도록. 아쉽게 전하지 말고 깊이 전하도록. 많은 지식적인 것을 모아서 전해주도록.

오늘은 기도해주는 날인데 같이 매일 기도를 해주지만 기도해 줄게요. 수능고시 보는 중고등부 위해서 여러분들 전체가 기도해주고, 지금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석달이 남았지만 지금부터 석달 동안 부지런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픈 자들 열심히 뛰는 자들 그리고 또 전도하는 자들 모두 위해 기도할게요.

[기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흠없이 모두 하라 했습니다. 앞으로는 흠없이 하기 위해서 전문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또 상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주고 그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의 70일이 끝났는데 기도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생활이다. 기도를 쉬면 안된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부터 기도를 70일 동안 하겠습니다. 어제 기도 끝나고 새벽에 기도할 때에 그제께도 말씀을 통해 하시기를 기도는 왜 하는지 아느냐? 전능하신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와 너희가 주와 함께 살아가는 생활이니라. 기도는 생활인데 기도않고 대화 않고 생활이 되느냐. 그것은 시키나 안 시키나 엄격히 해야 된다 했습니다. 살아갈 사람은 기도를 해라 했습니다.

대화해야 그 사람 마음을 알게 된다. 기도를 해야 그 사람 마음을 알게 되지 대화를 안 하면 그 사람 마음을 모른다. 신의 마음을 모른다. 그러므로 대화를 늘 계속 하는 것이다. 7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과 살아나가는 삶을 70일 정해놓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했더

니 흠없이 자기를 만드는데 대해서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도 받아내고 그리고 생활도 하도록 하라.

그리고 자기 국방 환란 어려움을 완벽하게 이기는 능력과 권세를 저마다 길러라. 그러면 저 혼자 있어도 다 이겨버린다. 전에 환란이 있을 때 옆에 사람 몰랐습니다. 집안에 환란 핍박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자기가 다 이겨 왔습니다. 이와 같이 더 능력과 권세로 이기듯이 자기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면 국방의 권세와 세력을 세워놓으면 누가 건들어도 혼자도 다 이겨버린다. 과감하게 싸우고.

운동해서 능력있는 자는 옆에 사람 같이 협조없이 다 이겨버리듯이 덤빌테면 덤벼라 하고 오히려 덤빌 자를 찾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기간에 자기 국방을 완전히 강력하게 만들고 흠없이 만들고 사탄의 침범을 받지 않도록 그리하는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그리했습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과 살려면 생활이니 하여라. 성령과 성자와 주와 살려면 생활이니 하여라. 주랑 살려면 주와 같이 대화도 해야 되지 않겠냐. 안하려면 뭐 하러 살겠냐. 병어리랑 살겠냐 했습니다. 이와 같이 살려면 대화하라. 의논하고 얘기도 하라 했습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은총과 능력과 권세를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지체는 머리로 의논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흠없이 우리가 삶이 충만할지어다. 흠이 있는 사람은 흠을 안 고치면 흠 때문에 항상 빛나는 면류관을 받을 수 없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얻을 수 없습니다. 월명동은 해놓을 것을 다 해놔서 지금은 흠있는 것만 전부 다 고치고 만들고 교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큰 것은 했는데 시대 섭리를 깨닫고 가고 있는데 이제 흠들을 고치지 않으면 그로 인해서 호리라도 남기지 않으면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기간이다 했습니다. 모두 그와 같이 행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난 70일 기도도 흠있게 기도한 자들이 너무 많사오니 흠없는 기도를 앞으로 하자 그랬습니다. 모든 아픈 자 약한 자들도 흠이 있어서 아픕니다. 건강의 흠들이 있어서 그로 번창해 버렸습니다. 흠들을 아예 없애버려라. 시작했을 때 흠을 없애버려라. 그것이 크고 크니라 했습니다. 모두 흠, 눈의 시력의 흠, 코의 이빈후과의 흠, 이의 이비인후과의 흠, 이 모든 귀의 흠, 심장 내장 오장, 모두 흠들이 있으므로 그로 인해 시작되었으니 흠을 없애는 늘 기도를 하자 했습니다.

아픈 자 위해서 늘 기도하지만 너희도 기도하라. 간구하라. 나는 뚜정덮는 기도를 할 뿐이다. 너희는 구체적인 기도를 하자. 내가 구체적인 기도를 일일이 다 해줄 수가 없노라. 모든 뚜정을 덮는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는 그렇게 기도할 뿐이니 이들의 기도를 내가 대신 다 해줄 수 없습니다. 아픈 자를 모두 기억해 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주로 하는 사명이 그러합니다. 모두 그리하게 해주시고 아픈 것을 자기가 안 아프도록 혀를 깨물

며 열심히 돌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아픈 자, 신앙의 아픈 자도 신앙의 문제가 있는 자도 다 자기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많지 않다 했습니다. 모두 각각 자기를 돌아보며 완전하게 하라 했습니다. 열심히 뛰고 전도하고 관리하고 증거도 하는 자에게 능력과 권능을 더해주시고 축복도 해주시고 잘되고 형통케 해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자들 얼마든지 전도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데 능력과 권세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안합니다. 저마다 표적을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삶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말씀을 줬고 하나님이 시대를 줬는데 자기가 구원받고 겨우 오는데에 그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므로 가다보니까 자기까지 시원찮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능력과 권능을 하나님께 맡긴 것을 이제는 행함으로 더욱 확신을 가지고 권세있는 삶을 신부들이 하게 해주시고 흔들리고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을 애기도 해봤는데 하기는 하는데 뜨겁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믿어주게 하는 자가 정말로 찾기 힘듭니다. 확실하게 믿고 분명하게 믿고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이들 위에 함께 하고 오늘부터 또 하나님과 대화하며 70일 동안 우리 체질을 완전히 되어버리게 하겠사오니 2차 감행하면 전반기 경기 끝나면 후반기 경기하고 후반기 경기했어도 많은 것이 부족하면 또 연장전하는데 이와 같이 해서 금년도 기도하며 행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있는 자가 다 되겠사오니 다 그리하게 해주시옵소서.

70일 동안 우리가 기도한 거 들으심을 감사하고 또한 우리 부족한 것을 용서하시고 또 70일 동안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받으시고,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주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하는데 절대적인 자는 절대적으로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로 행하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이와 같이 그 근거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을 주어서 이와 같이 내가 너희와 함께 했노라 말씀했습니다. 이를 깨닫고 늘 신경쓰며 살게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지혜를 주심을 더욱 날마다 키우고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잊지 말고 행하라 했습니다. 잊으면 못한다 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이 이들 위에 함께 하고 오늘도 흠없이 자기를 회개하며 깨끗게 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데에 전적으로 행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들 위에 충만하게 함께 하기를 간절기 간구하고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말씀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부터 70일동안 기도하고 말씀을 주고 수요일도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겠어요. 병들면 새도 죽더라고요. 병들으니까 한 마리 새가 죽었는데 병들면 죽어요. 시름시름하다가 죽었어요. 여러분들 신앙의 병들면 죽습니다. 병든 자를 어제 꿈에도 보니까 나무들이 죽 있는데 성지땅에 쭉 있는데 병든 나무들이 보이더라고요. 병들면 결국 죽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신앙의 병 육신의 병을 심각하게 보고 늘 행해야 합니다. 내가 늘 기도를 해주지만 70일 기도 한 거 여기서 21개의 잠언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선물주시고 돌로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 모두 들어주신 것으로도 선물로 주시고 전도도 되고 많은 생명들을 주었는데 이것은 수요일 말씀으로 주겠어요.

그러면 하루가 또 멋있게 진행되고 행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때에 행해야 됩니다. 이때가 좋은 기회입니다. 8월 한달 9월 한달 강력하게 기도하며 흠없이 여러분들 하기를 바래요. 안녕.